

오륙도 칼럼



최 화 수

올 여름은 더위도 너무 더웠다. 특히 부산지방은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시민들은 지독한 찜통 더위에 시달렸다. 연일 이어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력대란’ 위기가 팽배하면서 ‘순환 단전’과 ‘블랙아웃(대정전)’에 대한 공포로 생뿔을 흘려야만 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 2호기에 불량부품을

사용한데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나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였다.

‘블랙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순환단전이나 대정전 사태가 빚어졌으면 어땠을까? 온 세상이 암흑과 마비의 연속이 되었을 것이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문명생활을 송두리째 잃는다. 산업과 통신 교통이 마비되고, 냉

장고와 세탁기도 무용지물이 된다. 순환단전일 경우에도 그 전문학적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대정전’ 과국을 막고자 전국 2만여 공공기관의 에어컨과 공조기 전원스위치가 한꺼번에 내려졌고, 많은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실내 조명등을 끄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근무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난리를 지켜보노라니

‘동국세시기’의 피서법 한 대목이 떠올랐다. ‘풍충거풍(風衝擊風)’, 곧 남자들이 산에 올라가 옷을 벗고 아랫도리를 벌여 말리며 더위를 이겨내는 풍속이다.

올해 여름은 ‘전력대란’과 ‘전쟁’ 사태로 특징된다. 유별난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 자칫 대정전과 같은 재앙을 불러올 뻔했다. 국가적인 절전 캠페인에 매달렸던 것도 그래서였다.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실내온도를 규제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최저온도를 28도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 30도C 이상의 온열로 한증막을 방불케 했다.

폭염 기간 내내 전력예비율이 바닥에서 간당간당, 외출타기를 했다. 그렇다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여름을 냈을까? 다산 정

약용의 ‘소서팔사(消暑八事)’가 그 답이다. 숲 속에서 활쏘기, 나무그늘에서 그늘타기,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비오는 날 시 짓기, 강변 누각에서 투호놀이, 달밤에 밭 씻기 그 것이다. 마을로 더위를 씻어내는 선조들의 지혜를 읽게 된다.

필자도 전기가 없는 시골마을에서 성장했다. 동네 한가운데 큰 느티나무 아래 그들이 최고의 피서지였다.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평상에 앉아 ‘매구’ 얘기를 들었고, 천렵을 하여 매운탕을 끓여먹기도 했다. 그 무엇보다 찬 샘물을 길어 등불을 하는 것이 가장 시원했다. 수박밭 원두막을 찾은 강변에서 모래질도 했다. 여기에는 부채 하나만 더 곁들이면 즐겁고

신나는 삼복염천이었다.

전기가 없던 시절 우리는 자연에 동화되어 폭염을 이겨냈다.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동고동락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발과 착취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일방적인 자연파괴가 이뤄졌다.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 열대우림 벌목으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불러왔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졌다. 그래서 여름철의 폭서와 겨울철의 혹한이 반복적으로 자연재앙을 일으킨다.

이제는 폭염을 타죽(濯死)이나 부채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올여름 이 지독한 폭염은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최악의 홍수와 폭설, 가뭄과 한파

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 앞에 얼마나 오만했으며, 학대와 갈취를 반복했었나.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전기가 없으면 곧장 식물 상태가 되는 우리의 병든 생활문화도 고쳐야 한다. 디지털과 IT, 자동화기기의 물질만능, 편의주의를 웰빙으로 착각하지 말자. 병든 물질문명의 유혹부터 떨쳐내야 한다. 그래서 들길 산길의 풀잎, 꽃잎 하나와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어 보자.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야말로 지구촌에서 가장 순리적으로 사는 길이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누리며 자연의 외경심(畏敬心)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하겠다.

소설가·‘녹색도시부인전’ 공동대표

신선대

<211>

채 규홍



차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수(대연6동)



선용익

1000자 지혜

111

최고는 자기가 아니다

〈토끼전〉에 토끼가 거북을 비웃는 이런 대목이 있다. “너는 우물 안 개구리라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도다. 서자의 겸인지용도 겸공에 죽어 있고 초패왕의 기개세도 해하성에 패하였으니 우직한 네 용맹이 어찌 내 지혜를 당할소냐” 이 말을 들은 거북의 심정은 어땠을까? 세상에 자기보다 뛰어난 토끼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눈 앞이 캄캄 했을 것이다. 세상에는 그 거북이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송(宋)나라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겨울에도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

떨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봄이 되어 따스한 햇빛이 비치자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따스한 햇빛을 혼자 쬔다니 정말 아깝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마운 햇빛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임금님께 말씀드리면 큰 상을 내리시겠지?”

그는 세상에 공경 같은 큰 집과 배부르게 먹고 다스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허를 찔러 차며 말했다.

“옛날에 들란의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먹는 풀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마을의 부자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먹는 풀을 대접하겠다고 했지. 노인은 풀맛이 어떨까 하고 호기심에 먹었는데 그만 배탈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 인이 얼마나 욕했겠어? 자네는 그 풀을 먹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 이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남들은 알고 있으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아.”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남의 생각은 아니다. 그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게 보이는 하늘은 다만 그가 갖고 있는 대통의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과 세상, 그 작은 것뿐이다. 그러기에 많이 안다고 큰소리칠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코를 치켜세울 것도 아니다. 언제나 주위를 살펴보면서 돌다리도 살얼음 위를 걷듯 자제를 낮추고 겸어간다면 뎡통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대학로 문화 환경 보존을

남구 대학로의 가장 큰 매력은 아직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꽃피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다만 독특한 문화지구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대학로 부근이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상업자본에 잠식당할까 하는 우려가 든다. 서울 흥대 지역이 독특한 문화지대로 출발했다가 그 지역의 경제성만 노린 업체들의 투입으로 그 성격이 일부 변질된 예가 있듯이, 남구 대학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구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업자들을 보호해주고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

는 문화 지구들을 잘 육성하여 대학로가 진정한 문화지대로서 그 잠재력을 드러냈으면 한다.

이지우(용호1동)

개방 운동장 깨끗이 사용하자

요즘에는 대다수의 초·중·고교에서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가족이 함께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걷기도 하고 축구나 족구, 테니스도 하며 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주차장으로까지 제공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욱 심신을 지치게 하는 게 있다.

남구청 인근 동원로앞파크 아파트와 오양양지아파트 사이의 이면도로에는 매일 불법주차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차가 뒤엉키면서 운전자들끼리 싸우는가 하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어 고통이

우도형(문현1동)

■ 詩가 있는 풍경

나뭇잎

여름철 나뭇잎들이 녹색으로 제 몸을 추부작하고
악착스레 가지를 잡고 있다
잡고 있는 손아귀에 수천 번 힘주
는 것
생의 힘을 불어넣었기에
일찍은 도드라져 주름살처럼 선명
하다

순간이 아슬아슬하다
추락하는 그곳에 무수한 바스락거
림의 말들이 부성하다
생의 존경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도 바람을 제 몸에 누이면서
바람이 연결하는 공간을 이동한다
가득 채우고 싶어서

바람의 말도 밀린 삶은 가득한 몸
한 가지에 매달려 살아가는 순간
것



김두기

시인·환경미화원

연륜이 길어질수록

나뭇잎에는

예절의 길이 선명해진다

알차고 유익한 남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www.namgusports.or.kr)

○접수기간 : 기존회원 -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신규회원 - 매월 23일 부터(선착순 마감)

프로그래	대상	교육일	참가비	수업시간
수영	성인	월~금	66,000원	8시/7시/8시/9시/10시/11시/13시/14시/18시/19시/20시/21시
		월/수/금	44,000원	13시/14시/15시/16시/17시
	중·고등	화/목	33,000원	13시/14시
		화/목	30,000원	15시
	초·중	월~금	44,000원	16시/17시
아쿠아로빅	성인	월/수/금	60,000원	15시/16시/17시
		화/목/토	60,000원	12시/13시/15시/16시
헬스	청소년이상	월~토	44,000원(청소년: 38,000원)	06:00~22:00 토 09:00~18:00
		토/일	22,000원(청소년: 17,000원)	09:00~18:00 (일요일은 한달에 2회 오픈)
골프 (일반타석)	누구나	월~금	110,000원(청소년: 88,000원)	06시~22시 (매시간 수업)
		토/일	77,000원(청소년: 66,000원)	9시/10시
골프 (스크린타석)	누구나	월~금	143,000원(청소년: 121,000원)	06시~22시 (매시간 수업)
		토/일	100,000원(청소년: 85,000원)	11시/12시/13시/14시
요가	성인	월/수/금	40,000원	8시/9시/10시/11시/19시/20시
		화/목	30,000원	8시/10시/11시/13시

프로그래	대상	교육일	참가비	수업시간
자세교정 '발라리스'	성인	화/목	40,000원	19시/20시
		월~금	50,000원	9시/10시/11시/19시/20시
	성인	화/목	30,000원	12시
		월/수/금	40,000원	14시/15시
	성인	화/목	30,000원	13시/14시
어린이발레교실	유아~초등	화/목	28,000원	16시/17시
		토	69,000원(3개월)	11시/12시/13시
배드민턴	성인/청소년	월~금	44,000원(청소년: 38,000원)	8시/9시/10시/14시/18시/19시/20시/21시/22시
		토	33,000원	16시/17시
	초·중	월/수/금	25,000원	9시
		토	40,000원	17시
	초·중	화/목	25,000원	13시
농구교실	성인	월/수/금	33,000원	15시/16시
		토	25,000원	17시
	성인	월/수/금	33,000원	15시/16시
		토	25,000원	17시
	성인	월/수/금	33,000원	15시/16시
체력증진교실	만19~64세	월/수/금	10,000원(회원)	13시/14시/15시
		토	30,000원(비회원)	14시
	만60세이상	월/수/금	10,000원	14시
		토	30,000원	14시
	만60세이상	월/수/금	10,000원	14시

9월 남구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교실	요일	시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기간	접수기간
장수체육대학 (댄스스포츠) 무료교실	화·목	13:00~14:00	30명	한국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못골시장 롯데리아)	9.01~11.30	
장수체육대학 (게이트볼) 무료교실	월~금	15:00~17:00	60명	남부사업소 게이트볼장 (용호3동 소재)	9.01~10.31	
장수체육대학 (그라운드골프) 무료교실	월~금	09:30~11:30	20명	백운포체육공원 (용호동 소재)	9.01~10.31	
생활체육(탁구) 무료교실	화·목	16:00~17:00	20명	동향탁구장 (감만1동 소재)	9.01~11.30	
생활체육 (다이아트 음악줄넘기) 무료교실	화·목	10:00~11:00	20명	용호태권도장 (용호2동 소재)	9.01~10.31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무료교실	월·수·금	11:00~12:00	30명	한국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못골시장 롯데리아)	9.01~9.30	2013. 8. 26 ~ 8. 31
수영	A반	12:00~12:50	30명	용호레포츠 (용호3동 소재)		
	B반	13:00~13:50	30명			
	C반	14:00~14:50	30명			
	D반	12:00~12:50	30명			
	F반	13:00~13:50	30명			
탁구	A반	10:00~11:30	17명	유엔탁구장 (유엔로타리)		
	B반	11:30~13:00	17명			
요가	A반	09:00~10:00	25명	남구생활체육회 교 육 관 (대연6동 소재)		2013. 9. 01 ~ 9. 30
	B반	10:00~11:00	25명			
	C반	15:00~16:00	25명			
	D반	09:30~10:30	25명			
	지혜반	18:30~19:30	25명			
당구	월·수	11:00~12:00	20명	은혜당구장 (용호1동 소재)		
	월·수·금	10:30~12:00	30명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朴景鎬 / 편집장 河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